



2013년 9월 3일

투자전략 Daily

- 투자전략 | 노근환 ☎ 3276-6226
- 시 황 | 박소연 ☎ 3276-6176
- 글로벌전략 | 박중제 ☎ 3276-6560
- 기술적분석 | 김철중 ☎ 3276-6247
- 계량/파생 | 안 혁 ☎ 3276-6272
- 경제분석 | 전민규 ☎ 3276-6229
- 이머징마켓 | 윤향진 ☎ 3276-6280
- 채권분석 | 이정범 ☎ 3276-6191
- 크레딧 | 김기명 ☎ 3276-6206



• 투자전략

부동산대책, 한국 가계 레버리지가 늘어난다

• 채권분석

9월 채권월보: 변화의 바람

• 크레딧 분석

9월 크레딧 시장: 가격부담에 따른 약보합 예상

• 이머징마켓 동향

지표 개선으로 중화권 증시 강세

• 전일 시장 동향과 특징주

• KIS 투자유망종목

단기 유망종목: 디지털옵틱 외 5개 종목

중장기 유망종목: 엔씨소프트 외 5개 종목

• 산업분석

손해보험, 통신서비스, 자동차

• 국내외 자금동향 및 대차거래

• 선물 옵션 시장 동향

• 증시 캘린더

주요 증시 지표 및 주체별 거래 동향

◆ 주요 증시 지표

구 분		08/26 (월)	08/27 (화)	08/28 (수)	08/29 (목)	08/30 (금)	09/02 (월)	
유가증권	종합주가지수	1,887.86	1,885.84	1,884.52	1,907.54	1,926.36	1,924.81	
	등락폭	17.70	-2.02	-1.32	23.02	18.82	-1.55	
	등락종목	상승(상한)	537(5)	256(1)	242(3)	562(8)	419(7)	461(3)
		하락(하한)	268(0)	539(0)	534(0)	246(1)	376(2)	331(1)
	ADR	83.46	84.36	79.42	81.39	81.35	81.25	
	이격도	10 일	99.77	99.66	99.74	101.05	102.01	101.89
		20 일	99.46	99.39	99.40	100.64	101.61	101.53
	투자심리	40	30	20	30	40	40	
	거래량 (백만 주)	316	409	378	302	301	244	
	거래대금 (십억 원)	3,304	3,772	3,442	4,795	5,106	3,477	
코스닥	코스닥지수	533.73	524.39	517.44	520.37	516.74	525.18	
	등락폭	4.54	-9.34	-6.95	2.93	-3.63	8.44	
	등락종목	상승(상한)	537(12)	256(5)	242(8)	562(4)	419(7)	602(10)
		하락(하한)	268(1)	539(0)	534(3)	246(2)	376(7)	316(1)
	ADR	81.39	80.83	74.77	76.30	76.18	77.48	
	이격도	10 일	98.84	97.58	96.89	98.00	97.90	99.98
		20 일	97.74	96.17	95.15	95.99	95.61	97.41
	투자심리	40	30	20	30	40	40	
	거래량 (백만 주)	332	385	388	302	400	316	
	거래대금 (십억 원)	1,462	1,805	2,283	1,623	1,964	1,637	

◆ 주체별 순매수 동향

(단위: 십억원)

구 분	개 인	외국인	기관계	(금융투자)						기 타	
				(금융투자)	(보험)	(투신)	(사모)	(은행) (연기금 등)	(기타)		
유가증권	매수	1,604.9	825.6	921.6	147.1	190.5	226.2	61.6	19.3	276.961	45.6
	매도	1,734.1	769.4	853.7	150.6	129.6	274.7	55.6	17.9	225.3	40.6
	순매수	-129.2	56.2	68.0	-3.5	60.9	-48.5	6.0	1.4	51.6	5.0
	9월 누계	-129.2	56.2	68.0	-3.5	60.9	-48.5	6.0	1.4	51.6	5.0
	13년 누계	-1,516.2	-7,020.9	9,180.9	1,364.6	1,121.6	-756.7	309.1	-724.4	7,866.7	-643.8
코스닥	매수	1,464.3	90.8	64.3	13.1	9.6	16.6	10.0	0.6	14.4	8.2
	매도	1,483.4	67.8	61.4	11.4	12.4	22.8	5.0	0.6	9.2	14.9
	순매수	-19.2	23.0	2.9	1.7	-2.8	-6.1	5.0	0.0	5.1	-6.7
	9월 누계	-19.2	23.0	2.9	1.7	-2.8	-6.1	5.0	0.0	5.1	-6.7
	13년 누계	-856.5	1,186.0	437.8	-69.0	-1.7	424.5	-132.3	-69.8	286.1	-767.3

부동산대책, 한국 가계 레버리지가 늘어난다

9월 월간 밴드	1,830-1,950pt
2013년 연간 밴드	1,780-2,100pt
12MF PER	9.6배
12MF PBR	1.00배
Yield Gap	7.5%P

- ▶ 가계부채 문제, 저량(Stock)보다 유량(Flow)이 중요하다
- ▶ 12년 이후 부동산대책은 양치기소년, 이번에는 신규주택수요 증가, 레버리지 증가가 기대된다
- ▶ 건설업종 중 상승시 민감도가 큰 종목: 대림산업, 현대산업개발

단기적으로
가계부채 평가시
유량(Flow)이 더 중요하다

■ 가계부채는 방향성이 중요하다- 디레버리지와 레버리지의 차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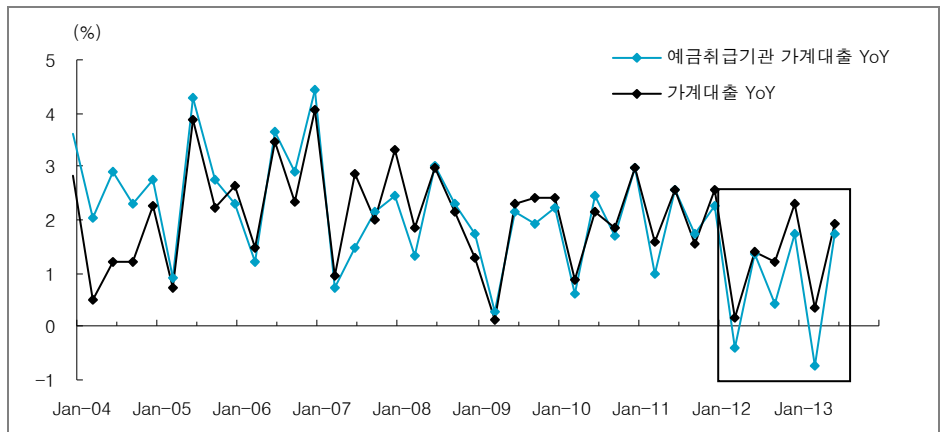
가계부채 문제는 저량(Stock), 유량(Flow) 2가지 측면에서 평가할 수 있지만 단기적 관점에서는 유량(Flow)이 더 중요하다. 저량(Stock)측면에서는 "가계부채의 절대수준이 많은가?"이라는 질문을 통해 중장기적인 가계부채 위험성을 평가할 수 있지만 가계부채 부담이 금융위기로 비화하는 시점을 단기적으로 가늠하기 어렵다. 유량(Flow)측면에서는 "가계부채가 지금 위축되고 있는가?"라는 질문을 통해 가계부채 위험성을 단기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디레버리지국면(가계부채 감소)은 레버리지국면(가계부채 증가)과 달리 가계 잉여현금흐름이 감소하고 소득도 감소하기 때문에 가계부채 부담이 심각한 단기 위협요인으로 기능할 수 있다.

한국 가계부채는
레버리지국면으로
우려할만한 단계는 아니다

2013년 한국 가계부채를 유량(Flow)측면에서 평가하면 레버리지국면이기에 우려할 단계는 아니다. 저량(Stock)측면에서는 한국 가계부채는 13년 6월말 기준 980조원(가계대출 927조원, 판매신용 53조원)으로 1,000조원 돌파를 앞두고 있어 가계부채 부담이 점증하고 있다. 다만 유량(Flow)측면에서 한국 가계부채가 증가폭이 완만하게나마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 긍정적이다. 13년 상반기 가계부채 증가분 16.3조원은 10년 24.1조원, 11년 34.0조원에 비해 적은 수준이지만 디레버리지국면(가계부채 감소)에 진입하지 않았다. 13년 상반기에 판매신용은 "체크카드 사용증가, 신용카드 사용감소"로 인해 4.5조원 감소했음에도 가계대출은 "주택담보대출, 전세대출" 등에 힘입어 20.8조원 증가했다.

12년 이후
가계대출 증가속도가
완만해짐

[그림 1] 가계대출 전년비 증가 추이



자료: Ecos, 한국투자증권

■ 8.28 전월세 대책/저금리, 레버리지를 자극하고 있다

8.28 전월세대책, 저금리가
한국가계의 레버리지를
자극하고 있다

정부의 부동산경기 부양외지는 8.28 전월세 대책에서 뚜렷하게 확인되고 있다. 정부는 취득세도 영구인하했고 수익/손익공유형 모기지를 통해 생애최초주택구입자에게 초저금리로 대출해줌으로써 주택매매를 보다 활성화시키고자 하고 있다. 정부는 부동산경기침체나 디레버리지를 용인하기보다는 개입을 통해 부동산경기를 부양하고 한국가계의 레버리지를 높힐 계획이다.

정부의 8.28 전월세 대책뿐 아니라 최저치수준에 머무르고 있는 대출금리도 한국가계의 레버리지를 자극하고 있다. 한국은행은 2012년 이후 기준금리 3.25%를 2.50%까지 3차례나 인하했다. 외국인 투자자도 한국채권 순매수로 시중금리 하락을 이끌고 있다. 이에 가계대출 평균금리는 11년 12월 5.37%에서 12년 12월 4.54%, 13년 7월 4.31%로 꾸준히 하락했다. 주택담보대출 평균금리는 3.77%로 가계대출 평균금리보다 낮은 수준이며 주택담보대출 평균금리를 결정하는 신규코픽스도 2.63%로 풍부한 유동성에 힘입어 하락하고 있어 주택담보대출의 부담을 덜어주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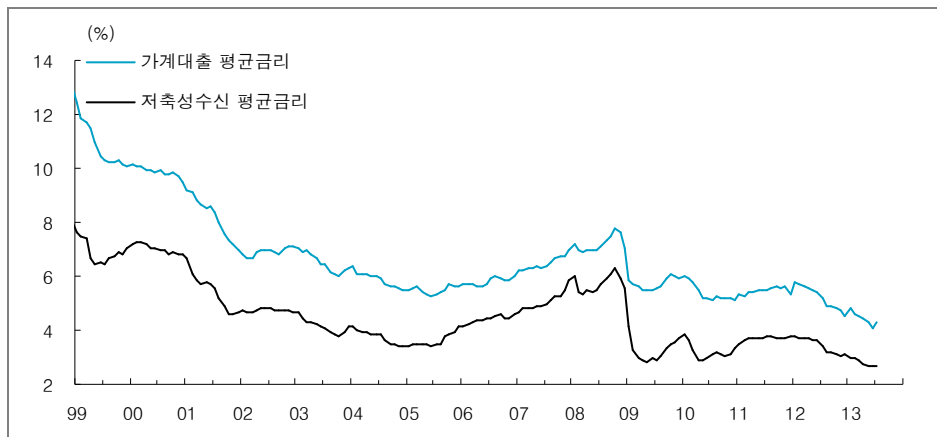
- ☞ 외국인 투자자 채권 순매수: 2010년 62.4조원, 2011년 41.4조원, 2012년 37.1조원, 2013년(ytd) 36.9조원
- ☞ 가계대출 927조원*106bp=9.8조원 이자비용 감소

<표 1> 한국 부동산정책

날짜	내용
12-05-08	5월10일 부동산 활성화 대책을 발표 예정, DTI 완화, 취득세 감면 조치는 제외, 강남3구 투기지역 해제될 전망
12-05-10	5.10 주택거래 정상화 방안, 강남3구를 투기지역에서 해제, 주택거래신고제도 폐지, 다만 DTI 완화는 제외됨
12-09-10	9.10 부동산대책, 미분양 아파트 매수시 향후 5년간 양도소득세를 면제, 모든 주택취득세를 연말까지 50% 인하
13-03-22	부동산 취득세 감면 연장안 본회의 통과, 13년 1월 1일까지 소급적용되며 13년 6월 말까지 취득세 감면
13-03-31	4월1일 종합부동산대책 발표 예정, 미분양 주택, 신축주택 양도세를 한시 감면 방안,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취득세 면제 검토
13-04-01	4.1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시장 정상화 종합대책 발표, 생애최초 취득세, 신축/미분양/기존주택에 대한 양도세 한시감면
13-06-06	국토교통부, 수직증축 리모델링 허용하는 주택법 개정안 국회 제출, 14층 이하 아파트는 2개 층, 15층 이상은 3개 층까지 허용
13-07-24	서울시의 경전철 사업 재추진, '서울시 도시철도 종합발전방안' 발표, 신림선, 위례신사선 등 10개노선 선정
13-07-29	새누리당, 재산세와 중부세를 합친 종합재산세 입법을 통해 지방자치단체 취득세 감소분을 보전해줄 방침
13-08-24	28일 전월세 종합대책 발표 예정, 취득세 인하, 6억원 이하 1%, 6억원~9억원 2%, 9억원 초과 3%로 각각 1%p 인하 예정
13-08-28	8.28 서민·중산층 주거안정을 위한 전월세 대책 발표, 취득세율 인하, 수익/손익공유형 모기지, 월세 소득공제 확대 등

자료: 한국투자증권

[그림 2] 가계대출 평균금리와 저축성수신 평균금리



자료: Ecos, 한국투자증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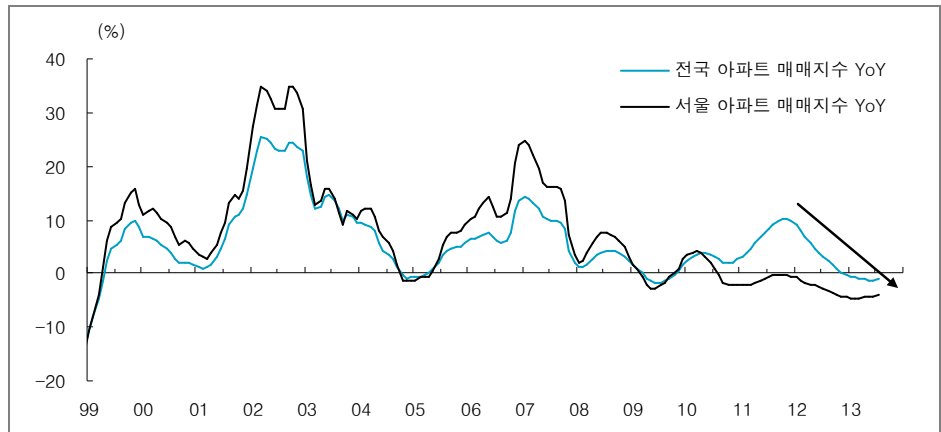
12년 이후 여러차례의 부동산 대책에도 불구하고 한국가계의 레버리지 증가는 제한적인 수준에 머물렀었다. 1~2달은 정책기대감으로 주택경기가 회복되는 듯 했으나 취득세 감면이 종료되고 나면 오히려 더 악화되는 모습이 반복되었다. 게다가 주택가격 하락에 대한 우려가 큰 상황에서는 취득세, 양도소득세가 감면되고 정책금리, 시중금리가 낮아도 신규주택수요가 좀처럼 늘어나지 않았다. 결국 저금리는 신규주택수요보다 신규전세수요를 자극하고 전세금만 급등시킬 뿐이었다.

**높은 전세매매가비율로 인해
신규주택수요가
쉽게 늘어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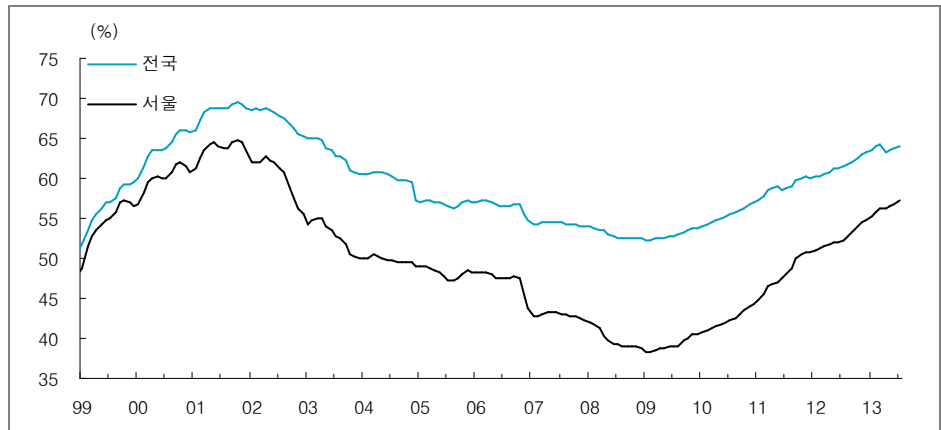
다만 13년 하반기에는 임차인의 신규주택수요가 전세금 부담으로 인해 부동산 대책, 저금리에 보다 민감해질 전망이다. 13년 7월 서울 아파트 전세매매가 비율이 01년 고점 부근까지 상승한만큼 8.28 전월세대책, 저금리가 임차인의 신규주택수요를 보다 자극하고 있다. 11년 12월~13년 7월간 꾸준히 전세금이 상승하면서 서울 아파트 전세매매가 비율은 50.8%에서 57.3%까지, 전국 아파트 전세매매가 비율은 60.1%에서 64.0%까지 상승했다. 전세금 상승은 "하우스푸어" 등 집주인에게 급매물을 회수할 자금운용여지를 주고 임차인에게는 신규주택수요를 자극하고 있다.

게다가 정부는 취득세 영구인하(거래절벽 완화), 수익/손익공유형 모기지(3천가구, 연내 1만가구)를 통해 주택가격 하락 우려를 진정시키고자 하고 있다.

[그림 3] 전국/서울 아파트 매매지수 전년비 추이



[그림 4] 전국/서울 아파트 전세매매가 비율 - 01년 고점에 근접하고 있음



자료: 국민은행, 한국투자증권

■ 레버리지 증가는 건설업종 투자심리에 긍정적인 요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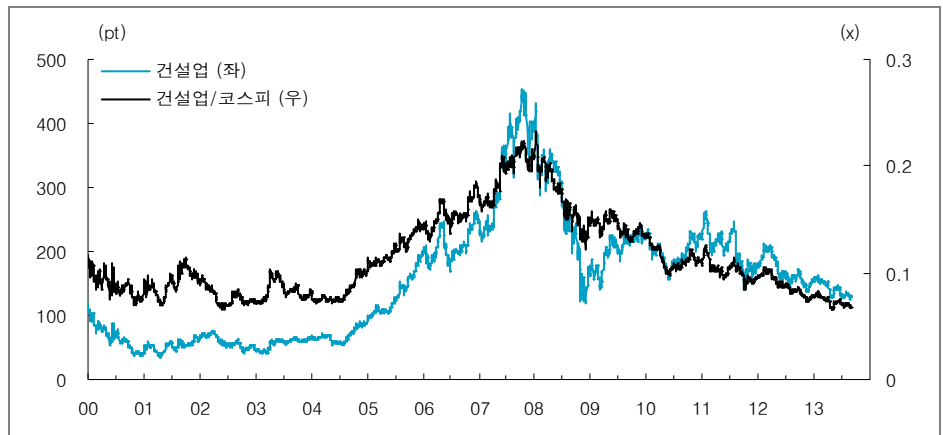
12년 이후 부동산대책은 양치기소년과 같았다. 부동산대책을 통해 주택시장을 안정시키겠다고 했지만 부동산 경기는 가계부채 증가 둔화와 함께 주춤했다. 건설업종의 상대강도도 부동산대책 발표전후로 1~2개월 정도 반짝했을 뿐 꾸준히 악화되는 양상이었다. 따라서 13년 하반기 8.28 전월세 대책이 여타 부동산대책과 마찬가지로 단기효과에 그칠 가능성도 있다. 다만 사상 최저금리 수준의 대출금리, 높은 전세매매가 비율, 취득세 영구인하 등은 신규주택수요를 자극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한다.

만약 13년 하반기 8.28 전월세 대책 이후 가계부채 레버리지가 10년, 11년 수준으로 빠르게 증가한다면 부동산 경기 침체도 완화되고 미분양도 해소될 수 있다. 최근 일부 주택분양시장에서 주택경기저점신호가 나타나고 있다. 세곡2지구 3,4단지, 내곡지구 3,5단지 중소형평형 일반분양에서 100:1이 넘는 청약경쟁률이 나타나기도 했다.

대림산업,
반등국면에서
민감도 높았다

지난 1년간 건설업종지수 상승시 민감도가 큰 건설주는 대림산업, 현대산업이고 단순 베타가 큰 건설주는 삼성엔지니어링, 대림산업, GS건설이다. LG하우시스는 건설업종지수 상승시 홍보했다. 따라서 대림산업 등 변동성이 큰 건설주가 한국 부동산 경기 회복기대가 높아지는 국면에서 여타건설주보다 좋은 성과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

[그림 5] 건설업종 주가지수 상대강도



자료: Fnguide, 한국투자증권

[그림 6] 서울 세곡 2지구 3,4단지 조감도



자료: SH공사, 한국투자증권

Appendix
- 전주 주요일정

날짜	국가	내용
08/26	이태리	대법원, 베를루스코니 전총리 세금횡령혐의 확정, 자유국민당은 집권연정 해체 등을 주장하며 반발
08/26	미국	존 케리 미 국무 장관, 시리아 정부 화학무기 사용 확인함, 미군의 시리아에 대한 강경조치 취해질 전망
08/26	미국	7월 내구재주문 -7.3% MoM, 예상치 -4.0% 하회, 3월 이후 처음 감소, 항공기 제외 내구재주문도 감소
08/26	미국	제이콥 루 미 재무장관, 미 연방정부 부채가 10월 중순 상한선인 16.7조달러에 도달할 전망, 부채한도 상향 시급한 상황
08/27	한국	LG생활건강 약세, 화장품 시장 정체와 생활용품 시장 침체, 해외 영업 성장 우려 부각됨, 저가화장품 프로모션 과다로 영업이익률 하락
08/27	한국	효성 약세, 국제청이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 해외법인 세금 탈루 정황 확인, 효성 세무조사를 조세범칙조사로 전환
08/27	한국	GS건설, 대림산업 등 건설업종 강세, '8.28 부동산 활성화 대책' 발표를 앞두고 투자심리 개선됨
08/27	인도	인도 루피화 사상최저치 경신, 하원 식량안전보장법 통과로 경수수지 적자 확대 우려, 67% 인구에 보조금으로 저가곡물 제공
08/27	한국	KOSPI 1,985.84pt, -0.11%, 인도 등 아시아 신흥국 금융 불확실성으로 인해 외국인, 기관 동반매수에도 약세
08/27	한국	한국정부는 북한에 금강산 관광 재개를 위한 실무회담을 10월2일 금강산에서 개최하자고 제의함
08/27	미국	척 헤이글 국방장관, 시리아 사태와 관련해 "오바마 대통령이 명령을 내리면 군사공격을 가할 준비가 돼 있다", 29일 공습설 부각
08/27	시리아	아사드 정권, "미국이 공격한다면 시리아는 가능한 모든 수단을 써 방어에 나설 것", 러시아, 이란 등도 반발
08/27	미국	공화당 존 베이너 하원의장, 대규모 예산 감축이 있어야 부채 한도를 상향 조정하는 데 동의할 것이라고 발언
08/27	미국	S&P500 -1.59%, 나스닥 -2.16%, WTI +2.92%, 미국 등 서방 국가들의 군사 개입설에 불확실성 확대
08/28	한국	서울반도체 최대주주 이정훈 대표, 118만주 매각, 27일 증가 대비 6.8% 낮은 36,200원으로 매각
08/28	한국	KOSPI -0.07%, 미국 시리아 사태 우려에도 불구하고 1~2% 하락한 중국, 인도 등 이머징아시아와 차별화함
08/28	한국	외국인, 기관 KOSPI 동반 순매수, 1,220억원, 649억원 순매수, 대형주 강세, 자동차, 자동차부품주 강세 두드러짐
08/28	일본	니케이지수 1.5% 급락, 시리아 사태로 엔달러환율 97엔대로 주저앉음, 필리핀 등 여타 아시아중시도 약세
08/28	한국	서민·중산층 주거안정을 위한 전월세 대책 발표, 취득세율 인하, 수익/소익공유형 모기지, 월세 소득공제 확대 등
08/28	한국	서울유유, 8월 30일 1당 220원의 가격인상 확정, 농협 하나로마트와 가격인상에 전격 합의
08/28	영국	카니 영란은행 총재, 은행들에게 요구하는 준비금 부담을 낮춰 대출 확대를 유도하고 필요시 추가 부양책을 제시할 예정
08/28	미국	미결주택매매 7월 -1.3% MoM, 예상치 -1.0% 하회, 모기지금리 상승에 따른 여파로 주택지표 둔화
08/28	미국	미국, 중국, 영국, 프랑스, 러시아 등 비공개회의, 미국과 러시아, 중국간 입장 차이로 시리아 사태에 대한 합의 불발
08/28	미국	WTI 장종 112.24달러까지 상승, 시리아 사태 장기화로 유가 급등 우려 제기, 미 에너지업종 추가도 강세
08/28	브라질	브라질 중앙은행, 기준금리(SELIC)를 8.50%에서 9.00%로 50bp 인상, 인플레이션 통제를 위해 긴축통화정책 실시
08/29	한국	NHN은 네이버와 NHN엔트로 분할 재상장, 거래정지기간(7월30일~8월28일) 부각된 라인 성장성 덕에 NHN 강세 전망
08/29	한국	기재부, 28일부터 3일간 S&P와 국가신용등급 연례협의, S&P는 한국 신용등급을 A+, 안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중
08/29	한국	현대글로벌비스, 한국 국적 선사로는 최초로 북극항로를 이용한 화물 수송 개시 예정, 운항시간 10일 단축
08/29	한국	KOSPI 1907.54pt(+1.22%), 시리아사태, 이머징투자심리 약화에도 한국중시 차별화, 외국인투자자 4,569억원 순매수
08/29	미국	2분기 GDP 성장률 수정치 2.5%, 예상치 2.2% 상회, 시퀘스터(sequester)에 따른 긴축 정책에도 미국 경기 회복
08/30	미국	존 베이너 하원 의장, 오바마 미국 대통령에 의회의 동의 하에 시리아를 공습할 것을 촉구, 31일 UN조사발표 이후로 공습 지연됨
08/30	한국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에 대해 검찰은 내란음모 및 국가보안법 위반 등 혐의로 사전구속영장 청구
08/30	한국	STX, 코스피 200지수에서 제외, STX가 관리종목으로 지정돼 9월 2일부터 코스피200에 호델신라 편입예정
08/30	한국	삼성 SDI 약세, JP모건 투자의견 하향, BMW-I project 불확실성, 단기급등에 따른 부담 등이 반영됨
08/30	한국	KT, LTE주파수 경매에서 승리, 1.8GHz 인접대역인 D2를 9,001억원에 낙찰, 예상보다 낮은 가격에 목표 달성
08/30	영국	영국 하원, 시리아 제재 동의안 표결, 반대 285대 찬성 275표로 승인 거부됨, 영국 독자행동 지연
08/30	미국	존 케리 미 국무장관, 시리아 화학무기 사용 증거는 확실하다, 북한 등을 거론하며 시리아 공습의 당위성을 강조
08/30	미국	미시건대 소비자심리지수 8월 82.1, 예상치 80.5 상회, 다만 전달 85.1 하회, 7월 소비지출은 0.1% MoM, 예상치 0.3% 하회
08/31	미국	오바마 대통령, 반드시 시리아 사태에 군사적 개입을 할 것이며 공격 준비를 모두 마쳤다, 9월 9일 의회승인 요청
08/31	일본	도쿄전력, 후쿠시마 오염수 저장탱크 3기와 배관 접합부 1곳 부근에서 시간당 70~1800밀리시버트(mSv) 고방사선량 검출
09/01	미국	보다폰 이사회, 버라이즌 와이어리스 45%(약 1,300억달러) 매각 예정, 버라이즌 와이어리스는 버라이즌 100% 자회사가 됨
09/02	한국	셀트리온, 아시아태평양 최대 류마티스학회인 'APLAR'에서 바이오시밀러 '램시마'가 호평 받음
09/02	한국	GS건설 등 건설업종 강세, '8.28 전·월세대책'을 발표 이후 투자심리 개선됨, 중소형 공급이 많은 경기 용인, 수지의 분양시장 호조
09/02	한국	비아트론 강세, 8월 30일 LGD 6세대 LTPS 20K 추가 설비투자(8,326억원) 계획, 비아트론 200억원 수주할 전망
09/02	한국	KOSPI 1,924.81pt, -0.08%, 외국인, 기관 매수에도 개인 차익매물에 약보합, 원달러환율은 1,100.5원으로 마감
09/02	중국	HSBC 8월 중국 제조업 PMI 50.1, 7월 47.7 상회, 정부의 미니 부양책 등이 산업 활동의 개선으로 이어짐

9월 채권월보: 변화의 바람

■ 8월 시장동향: 시리아 사태 심화 등을 재료로 금리 빠르게 하락반전

8월 채권금리는 투자심리가 좀처럼 회복되지 못하면서 상승압력을 받았다. 인도와 인도네시아 위기설에도 불구하고 Tapering 우려로 장단기 금리차는 확대되었다. 하지만 스티프닝 포지션을 풀고 이익실현에 나서는 기관들이 늘면서 금리는 빠르게 하락반전했다. 결국 시장은 시리아 사태와 S&P 신용등급 상향설 등을 재료로 전월보다 플랫닝되어 마감되었다.

■ FRB의 출구전략은 Two Track

최근 미국 경제지표 부진에도 9월 FOMC에서 연준의 채권매입 축소가 발표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우리는 연준이 채권매입규모 축소를 발표하겠지만 연방기금목표금리를 장기간 제로수준으로 유지할 것을 재확인할 것으로 전망한다. 그 동안 테이퍼링에 대한 연준의 시그널이 충분히 있었고, 향후 연준의 통화긴축이 공격적이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우리는 9월 FOMC 이후 금리가 추가 상승하기보다는 불확실성 해소기제로 작용하여 완만한 금리하락 흐름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한다.

■ 9월 시장전망: 엄폐물을 활용한 약진 장세

9월 채권시장은 국고채 3년 금리가 2.80% 수준의 제한된 하락과 3-10년 스프레드는 50bp까지 축소되는 플랫닝 장세를 예상한다. 연준의 통화긴축은 당초 시장 우려처럼 급격하게 진행되지는 않을 가능성이 높아졌다. 또한 9월에는 시리아 폭격, 미국의 정부부채 협상, 신흥국의 경기둔화 등 급격한 경기회복 기대를 되돌릴 재료들이 산적해 있다. 우리는 장기금리가 경제 펀더멘탈보다 과도하게 높다고 판단한다. 그러나 투자심리가 여전히 부진하다는 점에서 급격한 금리 되돌림보다는 엄폐물을 활용한 계단식 금리하락 시도가 나타날 것으로 전망한다.

*상기 보고서는 2013년 9월 2일 당사 홈페이지에 게시된 자료의 요약본입니다.

9월 크레딧 시장: 가격부담에 따른 약보합 예상

■ 8월 시장동향: 중순까지 스프레드 축소기조 이어진 뒤, 월말로 갈수록 약보합세

8월 크레딧 스프레드는 축소기조가 중순까지 이어진 뒤, 스프레드가 전저점 수준에 근접한 중순 이후부터는 횡보국면으로 전환되어 월말로 갈수록 스프레드가 소폭 확대되는 약보합세를 보였다. 월 후반 크레딧채권 매도 우위의 장세하에 매수 부진으로 매물이 계속 쌓이는 경향을 보인 점은, 스프레드가 전저점 수준에 근접한 데 따른 가격부담이 크게 작용한 가운데 향후 시장 변동성 증폭에 대한 불안감이 여전히 시장 저변에 깔려 있는 데에도 기인한 것으로 판단된다.

■ 9월 시장전망: 스프레드 점진적으로 소폭 확대되는 약보합기조 예상

9월 크레딧 채권시장은 크레딧 스프레드가 점진적으로 소폭 확대되는 약보합기조를 예상한다. 금리레벨 상승으로 캐리투자매력이 제고된 상태이기는 하나, 크레딧 스프레드가 전저점 수준으로 축소된 상태에서 추가적으로 스프레드가 더 축소되기에는 시장 환경이 우호적이지는 않은 상황이다. 미국 2분기 GDP 잠정치 호조로 9월 FOMC 정례회의와 관련한 변동성 확대 가능성이 여전히 존재하고, 국내 수출과 선행지수 개선에 따른 국내 경기 회복 기대가 나오고 있는 점도 궁극적으로 지표금리 장기추세의 상승압력으로 작용하여 크레딧 채권 매수를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또한 회사채 발행이 정상화되면서 월후반으로 갈수록 공급누적으로 수급부담이 발생할 가능성이 어느 정도 존재하며, 이는 점진적으로 소폭의 스프레드 확대로 연결될 것으로 예상한다.

만기구조별로는 장기투자기관의 캐리수요가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 5~7년 구간 중장기물이 상대적 강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상기 보고서는 2013년 8월 30일 당사 홈페이지에 게시된 자료의 요약본입니다.

지표 개선으로 중화권 증시 강세

- ▶ 8월 중국 관방 제조업 PMI 51.0으로 전월대비 큰 폭 개선, 16개월 만의 최고수준
- ▶ 11월에 부동산보유세 시범확대 예상, 1995년 중단됐던 국채선물 거래가 6일부터 재개 예정
- ▶ 홍콩H지수 글로벌 경제지표 호조로 2.3% 급등, 상해종합 강보합 흐름 유지

상해종합 강보합세로 마감
농업, 문화, 통신, 헬스케어,
신약 등의 업종 강세

■ 중국 시장

상해종합지수가 2,098p로 마감해 강보합세를 나타냈다. 상승 출발 후 2,100선을 중심으로 등락장세를 거듭했다. 거래대금은 1,211억위안으로 직전거래일의 1,321억위안보다 줄었다. 주말에 발표된 8월 관방 제조업 PMI가 큰 폭으로 반등해 경기회복 기대감이 확산됐다. 정부가 일부 지역에서 농경용지의 양도를 허용하기로 했다는 소식에 힘입어 농업관련주가 6%이상 급등했다. 항공기 수입 부가가치세 감면 조치가 발표돼 군수업종이 2.4% 상승했다. 그러나 1995년에 중단됐던 국채선물 거래가 6일부터 재개될 경우 증시자금이 유출될 것이란 우려가 악재로 작용해 지수 상승을 제한했다. 11월에 부동산 보유세 시범지역이 확대될 것이라는 전망과 난징시정부가 국유 기업들에게 부동산업무 정리를 요구해 부동산업종이 2% 이상 급락했다. 업종별로는 농업(+6.6%), 출판(+4.3%), 영화방송(3.8%), 통신서비스(+3.2%), 신약(+2.8%), 의료서비스(+2.5%) 등이 강세였던 반면 석탄가스(-6.1%), 철도(-1.1%) 등은 약세였다.

홍콩H지수 2.3% 급등
은행, 자동차, 석탄, 기계 등
경기민감주 강세 두드러져

■ 홍콩 시장

홍콩H지수는 2.3% 급등해 다시 10,000선에 올라섰다. 큰 폭의 상승세로 출발 후 장중 강세흐름이 지속됐다. 8월 중국 관방 제조업 PMI가 51.0으로 16개월 만에 최고를 기록했다는 소식이 가장 큰 호재였다. 8월 미국 ISM 제조업지수 등 선진국 경제지표도 개선됐고 인플레이션 압력이 낮아 양적완화 축소여부가 불확실하다는 분석도 제기됐다. 업종별로는 은행, 자동차, 석탄, 기계, 시멘트, 보험 등 경기민감주의 반등폭이 컸다.

◆ 주요 이머징마켓 주가지수 추이

(단위: p, %)

구분	9/2(월)	전월 대비(%)	5거래일 전 대비(%)	1개월 전 대비(%)	연초 대비(%)
중국 상해종합	2,098.45	0.00	0.09	0.00	-7.52
홍콩 H	10,055.05	2.34	-0.20	2.34	-12.08
인도 SENSEX	18,884.13	1.42	1.76	1.42	-2.79
러시아 RTS	1,298.15	0.56	-1.99	0.56	-14.99
브라질 보베스파	50,008.38	0.17	-4.19	0.00	-17.95
베트남 VN	472.70	0.89	-2.90	0.00	14.25
MSCI 이머징마켓	929.54	0.94	-0.35	0.00	-11.91

주: 2일 오후 6시 기준

시장 동향과 특징주

외국인 및 연기금의 매수세로 코스닥은 525P 회복에 성공. 반면 코스피는 악보합세로 마감

- 미국증시는 시리아를 대상으로 미국의 제한적인 군사개입 가능성이 제기되며 하락 마감. 소폭 오름세로 출발한 코스피는 보험과 연기금을 비롯한 기관과 외국인의 매수세로 장중 1,930P선을 회복하기도 했으나, 개인의 차익실현 매도세가 주가 상승을 제한하며 하락반전, 악보합세로 마감. 반면, 소폭 오름세로 출발한 코스닥은 6거래일 만에 순매수로 전환한 외국인이 주가 상승을 주도, 1.6% 이상 강세를 보이며 525P를 회복하며 마감
- 종목별 움직임을 살펴보면, 자체 개발한 자가면역질환 치료제 ‘램시마’가 국제학회에서 호평을 받았다는 소식과 함께 최근 단기 급락에 따른 반발 매수세가 유입된 셀트리온과 셀트리온제약이 6거래일 만에 반등에 성공하며 강세를 보인 가운데 수익 분배비율 조정 및 하반기 개봉작들의 흥행 성공 기대감에 미디어플렉스가 급등세를 나타냄. 오는 4일 삼성전자가 주력 스마트폰인 ‘갤럭시노트3’를 최초로 공개한다는 소식에 스마트폰부품 관련 종목들이 강세를 보였으며, 개성공단 재가동을 위한 첫번째 남북공동위원회 회의 개최 소식에 개성공단, DMZ 평화공원, 대북전력공급 등 관련 종목들의 강세가 두드러짐. 반면, 전두환 전 대통령의 미납 추징금 수사와 관련한 검찰의 압수수색 소식에 동아원이 급락했으며, 청부살해사건과 관련해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는 소식에 영남제분은 신저가 기록

종목/이슈	내 용
셀트리온(068270) ▶51,500(+14.19%)	‘램시마’ 호평 소식에 초강세 - 아시아태평양 지역 최대 류마티스학회인 ‘APLAR’에서 ‘램시마’가 현존하는 유일한 진짜 바이오시밀러로 평가받았다는 소식이 전해지며 6거래일 만에 반등에 성공 - 아울러, 최근 ‘램시마’가 유력연합으로부터 최종 판매 허가를 획득함에 따라 본격적인 판매 기대감도 주가에 긍정적으로 작용
미디어플렉스(086980) ▶4,555(+8.19%)	수익분배 비율 조정 기대감에 급등세 - CJ CGV에 이어 롯데시네마가 수익분배 비율조정예에 동참할 것이라는 소식이 전해지며 이에 따른 실적 개선 기대감에 급등세. 이는 흥행수익 분배비율을 기존 극장 50%, 배급사 50%에서 극장 45%, 배급사 55%로 조정되는 것 - 아울러, 오는 11일 개봉을 앞둔 ‘관상’에 대한 흥행 기대감이 고조되는 가운데 이후 ‘화이’, ‘동창생’, ‘용의자’ 등 하반기 기대작이 연이어 개봉될 예정
스마트폰부품주	‘갤럭시노트3’ 공개를 앞두고 강세 - 삼성전자가 오는 4일 독일 베를린에서 주력 스마트폰인 ‘갤럭시노트3’와 스마트워치 ‘갤럭시 기어’를 최초로 공개할 것이라는 소식이 전해지며 강세 - 크루셜텍(114120, +6.47%), 이엘케이(094190, +4.95%), 이엠텍(091120, +4.76%), 플렉스컴(065270, +4.72%), 인프라웨어(041020, +4.36%) 등 강세
대북 관련주	개성공단 남북공동위원회 1차 회의 개최 소식에 강세 - 개성공단 정상화를 위한 남북공동위원회 1차 회의가 개최됨에 따라 공단 재가동 및 대북관계 진전 기대감에 개성공단을 비롯해 DMZ 평화공원 등 관련 종목 강세 - 재영솔루텍(049630, 상한가), 이화공영(001840, +8.28%), 일신석재(007110, +8.18%), 루보(051170, +5.29%), 에머슨퍼시픽(025980, +4.17%), 로만손(026040, +3.09%) 등 강세

52주 신고가

종목	내 용
오스텍(031510) ▶2,645 (+5.17%)	- 현대차의 국내외 판매 호조에 따른 수혜 기대감에 신고가 경신. 아울러, 알루미늄을 원료로 한 자동차 엔진용 부품을 GM에 납품 중으로 차종차 경량화, 전기차 관련 수혜 기대감도 주가에 긍정적으로 작용

상기 종목들은 전일 시장에서 특징적인 흐름을 보인 주요 종목들로 추천종목과는 별개이니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단기 유망종목: 디지털옵틱 외 5개 종목

- 신규: 없음

- 제외: 없음

(단위: 원, %)

종 목 (코 드)	현재가 (수익률)	편입가 (편입일자)	투자 포인트
디지털옵틱 (106520)	19,000 (-3.6)	19,700 (8/2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휴대폰 렌즈 사업부가 400억원 이상의 매출을 달성하며 2분기 사상 최대 실적 달성 - 보급형 스마트폰 및 신규 태블릿PC 출시 등 우호적인 영업환경을 고려할 때 하반기에도 안정적인 실적 개선 흐름 지속 전망 - BW에 따른 부정적 효과는 공장 통합 및 대규모 증설을 위해 발행이었다는 점과 금년 예상익 대비 PER이 5배 수준에 불과하다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제한적인 전망
힐라코리아 (081660)	64,500 (+1.9)	63,300 (8/2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북미 지역의 소비 경기 회복과 증저가 시장에서 제품 경쟁력 강화로 힐라USA 실적 개선 - 힐라 USA 현재 오더 증가율이 30%대에 달하고 2012년 하반기 대량 반품 매출과 할인 판매로 인한 낮은 베이스로 하반기 전망도 긍정적 - 국내부문의 실적 부진이 지속되고 있으나 향후 실적 악화 폭은 둔화될 것으로 예상
비에이치 (090460)	11,600 (+0.9)	11,500 (8/0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업종 내에서의 경쟁우위를 지속하고 있는 가운데 하반기에는 고부가가치 제품인 RF PCB를 출시 예정 - 2분기 매출이 1천억원(YoY +87.5%)을 돌파한 가운데 금년 예상이익 기준 PER이 5배 수준(2007년 상장 이후 최저 수준)으로 저평가 매력 부각 가능성 상존 - 최대 고객사의 신규 필기인식 스마트폰의 TSP FPCB 주문이 본격화됨에 따라 3분기에도 물량 증가, 제품믹스 개선 등의 우호적인 영업환경은 지속될 전망
LG (003550)	66,800 (-0.9)	67,400 (7/3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력 자회사인 LG화학 및 LG전자의 실적 개선과 함께 그룹차원에서의 전기차 관련 투자 본격화에 따른 장기 성장성 부각 가능성 - LG CNS, 서브윈, 실트론 등 주요 비상장사들의 수익성 개선과 배당금, 상표권사용수익, 임대수입 등을 통한 안정적인 현금창출능력을 감안할 때 NAV 대비 과도한 할인율의 점진적인 축소흐름 지속 예상
세보엠이씨 (011560)	4,615 (+4.5)	4,415 (7/1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배관 및 덕트(Duct;공기나 기타 유체가 흐르는 통로 및 구조물) 설비 시공 국내 1위 업체로 주요 고객사들의 설비투자 확대에 따른 수혜 예상 - PSP(불소수지코팅덕트), 유기배기덕트 등 신제품 판매 증가로 영업이익률 상승 전망 - 최근 화학물진안전관리 종합대책 발표 이후 IT/화학업체들의 노후시설 교체 수요 증가 기대
신세계푸드 (031440)	92,600 (-4.7)	97,200 (6/2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규제 리스크 등으로 단기 업황은 부진하나 산업의 성장성, 생산설비 확충, captive market 확보 등을 감안할 때 밸류에이션 매력 부각 가능성 상존 - 올해 말로 예정된 음성 공장 가동으로 이마트 향 HMR(Home Meal Replacement) 및 PL상품의 매출 확대에 따른 성장성과 함께 제품믹스 개선 및 규모의 경제에 따른 수익성 개선 가능성 내재

■ Compliance notice

- 당사는 상기 제시된 유망종목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당사는 현재 LG 발행주식을 기초자산으로 ELW(주식워런트증권)를 발행 중이며, 당해 ELW에 대한 유동성 공급자(LP)입니다.
- 당사는 동 자료를 기관투자가 또는 제3자에게 사전에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당사는 동 자료의 금융투자분석사와 배우자는 자료 작성일 현재 본 자료와 관련해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중장기 유망종목: 엔씨소프트 외 5개 종목

- 신규: 없음

- 제외: 없음

(단위: 원, %, 십억 원, 배)

편입종목 (코드)	현재가 (수익률)	편입가 (편입일자)	2013년 추정실적				
			매출액	영업이익	순이익	EPS	PER
엔씨소프트 (036570)	163,500 (-3.3)	169,000 (7/30)	726	182	164	8,200	19.9
- 주력 게임인 블레이드앤소울과 길드워2가 중국에서 상용화될 예정으로 하반기 해외 매출 본격화에 대한 기대 유효 - 리니지1과 아이온 등 기존 게임들의 성과가 견조한 가운데 신규 MMORPG인 와일드스타(WildStar)의 연내 출시, 모바일 게임 개발 등을 감안하면 안정적인 성장 기조는 유지될 전망							
LS (006260)	71,100 (-2.9)	73,200 (7/22)	12,821	449	263	9,462	7.5
- 예상보다 더딘 실적 개선과 JS전선 문제 등은 이미 주가에 선반영된 상태로 밸류에이션은 금융위기 이후 저점 수준으로 추가적인 De-rating 가능성은 제한적 - 하반기 LS산전, LS니꼬동, LS엠트론 등 자회사들의 점진적인 실적 개선 기대 유효 - 전선 사업부가 전력선 수익성 향상, 해저 케이블 이익 기여 본격화, 2014년 자회사 상장 모멘텀 등을 주목할 필요							
만도 (060980)	127,500 (+19.2)	107,500 (7/11)	5,730	344	242	13,426	9.5
- 한라건설과 관련한 재무 리스크가 축소되고 있는 가운데 기저 효과에 따른 실적 개선 모멘텀과 함께 밸류에이션 매력 부각 가능성 상존 - 주 매출처의 공격적인 증설과 점유율 상승, 우수한 기술 및 원가경쟁력을 바탕으로 한 매출처 다변화, 중국 로컬업체와의 거래 확대, 전장제품 매출 비중 확대 등에 따른 장기 성장성 부각 가능성 상존							
삼성전자 (005930)	1,351,000 (-11.1)	1,520,000 (5/02)	235,178	42,197	31,496	202,968	6.7
- 스마트폰 판매 호조로 계절적 수요 약세에도 불구하고 1분기 어닝 서프라이즈 시현 - 갤럭시S4 출시로 2분기 이후에도 실적 개선 모멘텀 지속 전망 - 안정적인 사업 포트폴리오와 글로벌 시장 지배력 강화를 감안할 때 펀더멘탈 대비 저평가 해소 예상							
대교우B (019685)	3,725 (-7.3)	4,020 (4/11)	789	62	63	673	5.5
- 유아 및 초등학교 시장 1위(점유율 35%) 업체로 러닝센터에 대한 투자완료로 2013년 이익 개선 예상 - 학습지 단가 인상 가능성과 자회사를 통한 다양한 성장동력 모색 - 풍부한 자산가치와 배당 매력도를 감안할 때 안정적인 가치주로서의 매력 부각 가능성 상존. 2012년 DPS기준 우선주의 예상 배당수익률 5%를 상회							
유한양행 (000100)	197,500 (+6.2)	186,000 (3/21)	918	64	130	12,330	16.0
- 신제품 효과로 1분기 실적 호조가 전망되며, 하반기에는 API(원료의약품) 생산을 담당하고 있는 유한화학(100% 지분 소유)의 증설효과가 예상됨 - 유한킴벌리의 프리미엄 기저귀의 중국 수출 확대와 바이오 회사 지분투자 및 외부 신약 파이프라인 확보를 통한 성장 스토리에 대한 기대 유효 - 장기 성장성, 실적 모멘텀, 업종 내 상대적 저평가 매력 등을 주목할 필요							

■ Compliance notice

- 당사는 상기 유망종목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당사는 현재 엔씨소프트, 만도, 삼성전자의 발행주식을 기초자산으로 ELW(주식워런트증권)를 발행 중이며, 당해 ELW에 대한 유동성 공급자(LP)입니다.
- 당사는 동 자료를 기관투자가 또는 제3자에게 사전에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동 자료의 금융투자분석사와 배우자는 자료 작성일 현재 본 자료와 관련해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손해보험: 7월 실적: 폭우 및 장마의 계절적 요인에 부진

■ 2Q 순이익 전망 대비 31% 수준

5개 원수 손해보험사들의 7월 합산 순이익은 1,395억원으로 전년동기대비 26% 감소했다. 전년동기에는 투자이익률이 4.7%에 달할 정도로 유가증권처분을 통한 이익 늘리기가 많았고, 손해율도 올해보다는 낮아 합산비율이 101.7%로 당월의 103.6%보다는 크게 낮았기 때문이다. 이에 누적기준 합산순이익도 22% 감소했다. 그렇지만, 우리의 현재 전망치와 비교하면 2Q 중 진도율은 31%여서 대체로 예상에 부합하는 수준으로 전개되고 있다고 하겠다. 7월에는 자동차보험 손해율이 장마 및 폭우 때문에, 장기보험 위험손해율은 7월의 영업일수가 많았던 탓에 크게 상승했다. 장기 보장성보험 신계약은 누적기준으로 0% 성장률로 (-)에서 회복했다. 삼성화재의 (+)18% 성장이 눈에 띈다.

회사별로는 메리츠화재가 가장 양호한 순이익을 발표했다. 누적 기준으로 (+) 성장한 유일한 회사다. 비록 자동차보험 손해율 상승의 영향을 받았지만, 동 부문의 비중이 낮고, 작년에 올려놓았던 보장성 신계약의 계속보험료 유입 효과를 누리는 것 같다. 다음으로는 삼성화재와 동부화재가 36%의 진도율로 같은 수준인데 내용상으로는 삼성화재가 우위에 있다. 유가증권처분에 대한 의존도가 낮고, 보장성 신계약의 성장률을 상대적으로 높게 유지하고 있으며, 무엇보다 외부감사를 받지 않는다 하더라도 실적에 대한 예측 가능성이 가장 높기 때문이다. LIG손해보험은 가장 부진하다. 그나마 주목을 받았던 장기보험 위험손해율이 당월에 매우 큰 폭으로 올랐다는 점이 안타깝다. 현대해상도 순이익만 놓고 보자면 예상에는 다소 부진하지만, 타사의 장기보험 위험손해율이 큰 폭으로 오른데 반해 상승폭이 적다는 점에서 내용상으로는 메리츠화재 다음으로 주목받을 만하다.

■ 삼성화재, LIG손해보험, 메리츠화재, 현대해상의 순서로 선호

삼성화재는 7월 합산비율과 투자이익률은 각각 106.2%, 4.3%였다. 당월 순이익은 2Q 전망치(378억원)의 36% 수준이므로 예상에 부합한다. 누적순이익은 2,561억원으로 전년동기에 비해 21% 감소했다.

메리츠화재의 7월 합산비율과 투자이익률은 각각 102.8%, 4.77%였다. 당월 순이익은 157억원으로 2Q 순이익 전망치(378억원)의 42%를 기록했고 누적순이익은 676억원으로 전년동기에 비해 9.4% 증가했다. 지난주 2,460억원 어치의 후순위채발행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됨에 따라 RBC 비율은 210%를 넘을 것이다.

현대해상은 7월 합산비율과 투자이익률은 각각 102.9%, 3.82%였다. 당월 순이익은 205억원으로 2Q 순이익 전망치(784억원)의 26%를 나타내 예상보다는 다소 부진하다 할 수 있다. 그렇지만, 타사에 비해 유가증권처분이익에 의존하는 정도가 훨씬 낮고, 위험손해율 상승이 동사만의 현상은 아닐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 것은 의미있다.

LIG손해보험의 7월 순이익 규모는 54억원으로 예상보다 매우 적다. 가장 큰 이유는 당월에 기표한 법인세추징액 때문이나 이를 제외하더라도 당월 순이익은 84억원에 그치므로 2Q 전망치(625억원)에 비해 매우 부진하다. RBC 기준 강화에 대응한 자본확충은 애초 9월로 예정되었던 보험위험 측정기준 강화가 12월 시행으로 늦춰져 가을 정도에나 윤곽이 드러날 전망이다.

동부화재의 7월 순이익은 309억원으로 발표되었다. 이는 동사에 대한 2Q 전망치(849억원)의 36%를 차지하므로 예상 수준에서 전개되고 있다고 평가한다. 누적순이익은 1,287억원으로 전년동기에 비해 22% 감소했다.

*상기 보고서는 2013년 8월 30일 당사 홈페이지에 게시된 자료의 요약본입니다.

통신서비스: 실속 있는 주파수 경매로 시장 안정, KT 수혜 예상

■ 3사 합리적인 선택, KT는 1.8GHz 인접 주파수 획득

8월 19일부터 30일까지 진행된 주파수 경매가 10일차 51라운드 입찰을 거쳐 마무리됐다. KT는 원했던 1.8GHz의 인접대역 주파수(15MHz 블록)를 최저가격 2,888억원보다 211.7% 높은 9,001억원에 획득했다. SK텔레콤은 1.8GHz 주파수 대역(35MHz 블록)을 최저가격 6,738억원 대비 55.8% 높은 1조 500억원에, LG유플러스는 2.6GHz 주파수 대역(40MHz 블록)을 최저가격 4,788억원으로 낙찰 받았다. SK텔레콤은 20MHz 주파수 반납으로 15MHz 주파수에 해당하는 4,500억원이 실 낙찰가격이다. 3개 블록 합산 낙찰가격은 2조 4,289억원으로 최저가격 대비 68.5% 높았다.

■ KT는 광대역LTE 서비스로 마케팅 경쟁력을 회복할 것

금번 주파수 경매에 따른 영향으로 가장 주목할 것은 KT의 이동통신 경쟁력 회복과 시장 과열경쟁 억제 효과다. KT는 1.8GHz의 인접 주파수를 확보해 LTE-A(Advanced)와 속도가 같은 광대역LTE 서비스를 수도권지역부터 시작한다. 서비스 제한이 풀리는 14년 7월에는 전국 전지역으로 확대한다. KT는 광대역LTE가 경쟁사의 LTE-A보다 1) 커버리지, 2) 실 전송속도, 3) 단말기 종류와 가격, 4) 설비투자 등의 측면에서 우월해 마케팅 경쟁력이 전환점을 맞을 것이다. 이에 따라 가입자 수와 점유율이 증가세로 전환할 전망이다.

■ SKT는 실리를, LGU+는 여유 주파수를 챙김

SK텔레콤은 향후에 광대역LTE가 가능한 1.8GHz 주파수를 확보했다. 기존의 1.8GHz 장비를 활용할 수 있고 20MHz 반납으로 추가적인 인수비용도 4,500억원에 그쳐 실리를 챙겼다. LG유플러스는 2.6GHz 40MHz 블록을 최저가격에 확보해 LTE용 주파수가 가장 많아졌다. 다만 2.6GHz 이용에는 신규 투자가 필요하다.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는 주파수 경매의 영향이 미미할 것이다.

■ KT의 광대역LTE를 통한 경쟁력 회복은 시장 안정에 도움

KT의 LTE 경쟁력 회복은 불균형으로 치닫던 경쟁구도가 균형점을 찾고 시장경쟁이 안정화되는데 도움이 클 것이다. KT는 광대역LTE로 가입자 점유율 반전의 돌파구를 찾을 것이기 때문이다. KT가 광대역LTE 출시 초반에 일시적으로 마케팅을 강화할 수 있겠지만 광대역LTE가 우월한 서비스여서 굳이 보조금 위주 경쟁을 벌일 필요가 없다. 정부도 보조금 규제 법제화를 추진하는 등 보조금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 통신업종 비중확대, KT가 주파수 경매의 수혜주

통신주에 대한 비중확대 의견을 유지한다. 주파수 경매가 과열국면을 피하고 적정 가격에서 마무리돼 불확실성이 해소됐다. 광대역LTE 및 LTE-A 등 초고속LTE는 데이터 매출 증가의 촉매제가 될 것이다. 4개 통신업체의 3분기, 4분기 영업이익은 가입자당 매출(ARPU) 증가와 마케팅비용 감소로 전년동기 대비 각각 112.6%, 35.1% 증가할 것이다. 2년 평균 EPS 증가율 29.7%를 감안하면 12MF PER 8.3배는 낮아 보인다. 배당수익률이 4~6%에 달해 하반기에 배당메리트가 부각될 전망이다. 금번 주파수 경매의 최대 수혜주 KT는 하반기에 이동통신 경쟁력 회복으로 주가도 상승세가 예상된다.

*상기 보고서는 2013년 9월 1일 당사 홈페이지에 게시된 자료의 요약본입니다.

자동차: 파업 불구 선전, 향후 판매도 양호할 전망

■ 판매 증가율 2개월 연속 상승

8월 현대차, 기아차 판매는 부분파업이 있었음에도 기저효과, 신모델 효과 및 capa 확장으로 전년동월대비 24.5%나 증가한 605,676대를 기록했다. 이로써 판매 증가율이 6월 5.8%, 7월 6.4%에 이어 2개월 연속 상승했다. 양호한 성장세가 지속될 전망이다 그 이유는 1) 임금협상이 곧 타결될 것으로 예상되고, 2) 신차 비중이 상승세이며, 3) capa 확장 때문이다. 양사의 주가는 최근 외국인 투자자들의 매수세로 빠르게 상승했다. 현대, 기아의 외국인 지분율은 각각 45.15%, 36.39%까지 상승했다. 그러나 양사의 외국인 지분율이 가장 높았던 57.11%, 38.34%보다는 여전히 낮다. 현대차와 기아차에 대한 투자의견 ‘매수’를 유지하고 목표주가 280,000원(12MF PER 9배 적용, 역사적 평균)과 87,000원(12MF PER 8배, 업종 평균 PER)을 유지한다.

■ 전년대비 파업 강도 약해, 해외공장은 풀기동 중

현대차의 8월 판매는 381,429대로 전년동월대비 29.1%나 증가했는데 2개의 신공장(중국, 브라질) 효과가 지속됐고 작년 8월 파업이 이번 파업보다 더 강했기 때문이다. 내수판매가 47,680대로 전년동월대비 32.6%나 증가했다. 해외 판매도 28.6% 증가했는데 수출이 60.5%나 증가했고 해외공장 판매가 248,161대(+20.4% YoY)로 강세를 지속했기 때문이다. 파업에 따른 현대의 8월 생산차질은 28,084대였다. 기아차 판매는 224,247대(+17.5% YoY)를 기록했다. 내수판매 39,000대(+21.6% YoY), 수출 84,035대(+33.9% YoY)로 기저효과로 인해 내수 및 수출 모두 큰 폭으로 증가했다. 파업에 따른 기아의 8월 생산차질 규모는 9,475대로 12년 8월 40,000대에 비해 크게 감소했다. 해외공장 판매는 5.4% 증가해 성장을 지속했다.

■ 임금협상 타결 임박

임금협상 타결이 임박했다고 판단한다. 8월 30일 현대 경영진은 올 들어 처음으로 임금협상안(임금 9만 5천원 인상, 성과급 400%+800만원)을 제시했다. 이는 작년 최초 제시안과 거의 유사한 수준이다. 작년에 사측이 최초로 협상안을 제시한 이후 잠정 합의까지는 16일이 소요됐다. 12년 8월 30일 오전에 도출된 잠정 합의안은 임금 9만 8천원 인상, 성과급 500%+960만원이었다.

*상기 보고서는 2013년 9월 2일 당사 홈페이지에 게시된 자료의 요약본입니다.

국내외 자금동향 및 대차거래

이수정 (sujeong.lee@truefriend.com) ☎ 02-3276-6252

◆ 주요 증시 지표

구 분		08/26(월)	08/27(화)	08/28(수)	08/29(목)	08/30(금)	09/02(월)	
유가증권	종합주가지수	1,887.86	1,885.84	1,884.52	1,907.54	1,926.36	1,924.81	
	등락폭	17.70	-2.02	-1.32	23.02	18.82	-1.55	
	등락종목	상승(상한)	537(5)	256(1)	242(3)	562(8)	419(7)	461(3)
		하락(하한)	268(0)	539(0)	534(0)	246(1)	376(2)	331(1)
	ADR	83.46	84.36	79.42	81.39	81.35	81.25	
	이격도	10 일	99.77	99.66	99.74	101.05	102.01	101.89
		20 일	99.46	99.39	99.40	100.64	101.61	101.53
	투자심리	40	30	20	30	40	40	
	거래량 (백만 주)	316	409	378	302	301	244	
	거래대금 (십억 원)	3,304	3,772	3,442	4,795	5,106	3,477	
코스닥	코스닥지수	533.73	524.39	517.44	520.37	516.74	525.18	
	등락폭	4.54	-9.34	-6.95	2.93	-3.63	8.44	
	등락종목	상승(상한)	537(12)	256(5)	242(8)	562(4)	419(7)	602(10)
		하락(하한)	268(1)	539(0)	534(3)	246(2)	376(7)	316(1)
	ADR	81.39	80.83	74.77	76.30	76.18	77.48	
	이격도	10 일	98.84	97.58	96.89	98.00	97.90	99.98
		20 일	97.74	96.17	95.15	95.99	95.61	97.41
	투자심리	40	30	20	30	40	40	
	거래량 (백만 주)	332	385	388	302	400	316	
	거래대금 (십억 원)	1,462	1,805	2,283	1,623	1,964	1,637	

◆ 주체별 당일 순매수 동향

(단위: 십억원)

구 분	개 인	외국인	기관계								기 타
				(금융투자)	(보험)	(투신)	(사모)	(은행)	(연기금 등)		
유가증권	매수	1,604.9	825.6	921.6	147.1	190.5	226.2	61.6	19.3	276.961	45.6
	매도	1,734.1	769.4	853.7	150.6	129.6	274.7	55.6	17.9	225.3	40.6
	순매수	-129.2	56.2	68.0	-3.5	60.9	-48.5	6.0	1.4	51.6	5.0
	9월 누계	-129.2	56.2	68.0	-3.5	60.9	-48.5	6.0	1.4	51.6	5.0
	13년 누계	-1,516.2	-7,020.9	9,180.9	1,364.6	1,121.6	-756.7	309.1	-724.4	7,866.7	-643.8
코스닥	매수	1,464.3	90.8	64.3	13.1	9.6	16.6	10.0	0.6	14.4	8.2
	매도	1,483.4	67.8	61.4	11.4	12.4	22.8	5.0	0.6	9.2	14.9
	순매수	-19.2	23.0	2.9	1.7	-2.8	-6.1	5.0	0.0	5.1	-6.7
	9월 누계	-19.2	23.0	2.9	1.7	-2.8	-6.1	5.0	0.0	5.1	-6.7
	13년 누계	-856.5	1,186.0	437.8	-69.0	-1.7	424.5	-132.3	-69.8	286.1	-767.3

주: 외국인은 외국인투자등록이 되어있는 투자자

국내외 자금동향 및 대차거래

◆ KOSPI 기관별 당일 매매 상위 업종 및 종목

(체결기준: 백만원)

투		신	
순 매 수		순 매 도	
유통업	20,145	전기,전자	-54,215
서비스업	14,358	운수장비	-17,381
금융업	3,351	보험	-8,796
NAVER	15,451	삼성전자	-42,531
호텔신라	14,371	현대차	-7,785
LG화학	6,174	TIGER 200	-7,098
롯데쇼핑	4,904	삼성중공업	-6,215
KODEX 200	4,014	현대모비스	-5,172

연		기	
순 매 수		순 매 도	
유통업	17,480	운수장비	-20,879
금융업	8,542	서비스업	-2,639
통신업	7,721	기계	-2,322
삼성물산	13,438	현대차	-13,215
KT	13,397	기아차	-7,492
현대건설	4,661	LG유플러스	-6,167
한국전력	4,579	삼성화재	-4,889
LG디스플레이	3,875	LG전자	-4,603

(체결기준: 백만원)

은		행	
순 매 수		순 매 도	
화학	1,567	철강및금속	-2,019
통신업	1,476	유통업	-1,591
서비스업	916	증권	-506
KT	1,738	KODEX 레버리지	-3,332
삼성SDI	1,003	KODEX 200	-2,920
제일모직	909	POSCO	-2,277
SK	736	삼성물산	-2,033
만도	636	삼성전자	-1,080

보		험	
순 매 수		순 매 도	
서비스업	12,656	통신업	-7,052
전기,전자	11,601	은행	-727
유통업	7,829	제조업	-433
삼성전자	5,698	KODEX 200	-56,937
신한지주	5,119	KINDEX200	-13,127
POSCO	3,514	LG유플러스	-7,029
LG전자	3,221	우리금융	-2,858
SK	3,055	하나금융지주	-2,627

◆ KOSPI 기관/외인 당일 매매 상위 업종 및 종목

(체결기준: 백만원)

기		관	
순 매 수		순 매 도	
유통업	38,048	운수장비	-37,319
서비스업	32,746	전기,전자	-35,203
건설업	16,540	통신업	-12,257
KODEX 레버리지	51,791	삼성전자	-27,929
NAVER	22,582	KODEX 200	-24,518
호텔신라	13,526	현대차	-20,433
현대중공업	12,744	LG유플러스	-18,890
삼성물산	12,705	SK하이닉스	-12,709
LG화학	9,826	삼성중공업	-11,045
KB금융	9,749	삼성화재	-9,981
KT	7,894	현대모비스	-8,322
현대건설	6,046	기아차	-6,537
한국가스공사	5,870	SK이노베이션	-6,110

외		국	
순 매 수		순 매 도	
전기,전자	55,223	서비스업	-30,480
보험	17,298	유통업	-11,913
화학	17,068	금융업	-7,118
삼성전자	49,886	NAVER	-23,910
KODEX 200	38,425	LG디스플레이	-10,474
현대모비스	22,811	호텔신라	-10,447
삼성화재	11,182	KB금융	-8,919
SK하이닉스	9,784	기아차	-6,935
현대차	9,070	현대중공업	-6,466
LG유플러스	8,112	LG전자	-5,907
하나금융지주	7,744	현대상선	-5,627
현대하이스코	5,136	대우조선해양	-5,369
삼성테크윈	5,051	LG생활건강	-4,681

주: 외국인은 외국인투자등록이 되어있는 투자자

국내외 자금동향 및 대차거래

◆ KOSDAQ 기관별 당일 매매 상위 업종 및 종목

(체결기준: 백만원)

투 신		투 신	
순 매 수	순 매 도	순 매 수	순 매 도
출판,매체복제	3,107	반도체	-4,063
전문기술	393	소프트웨어	-1,710
디지털컨텐츠	242	운송장비,부품	-767
에스엠	3,107	루멘스	-1,758
뷰웁스	834	서울반도체	-1,467
조이맥스	623	파트론	-895
메디투스	550	KG이니시스	-806
차바이오앤	480	메디포스트	-668

연 기 금		연 기 금	
순 매 수	순 매 도	순 매 수	순 매 도
출판,매체복제	1,960	사업지원	-804
방송서비스	1,291	디지털컨텐츠	-718
인터넷	1,001	의료,정밀기기	-311
에스엠	1,960	하나투어	-804
CJ오쇼핑	1,245	위메이드	-514
다음	895	에스맥	-442
솔브레인	714	루멘스	-428
포스코 ICT	562	에스에너지	-319

(체결기준: 백만원)

은 행		은 행	
순 매 수	순 매 도	순 매 수	순 매 도
제약	74	소프트웨어	-164
전문기술	65	IT부품	-156
통신장비	49	비금속	-30
코오롱생명과학	112	유아아이디	-155
국보디자인	65	한국사이버결제	-97
뷰웁스	49	파라다이스	-59
HB테크놀러지	49	골프존	-49
동성화인텍	43	메디투스	-41

보 험		보 험	
순 매 수	순 매 도	순 매 수	순 매 도
방송서비스	935	반도체	-1,874
의료,정밀기기	818	디지털컨텐츠	-1,803
금속	630	기계,장비	-503
GS홈쇼핑	1,353	서울반도체	-1,663
성광벤드	1,291	위메이드	-1,589
세코닉스	498	파트론	-637
포스코 ICT	477	모두투어	-510
CJ E&M	451	CJ오쇼핑	-418

◆ KOSDAQ 기관/외인 당일 매매 상위 업종 및 종목

(체결기준: 백만원)

기 관		기 관	
순 매 수	순 매 도	순 매 수	순 매 도
출판,매체복제	10,411	반도체	-5,346
제약	3,014	IT부품	-2,380
방송서비스	1,285	소프트웨어	-2,268
에스엠	10,456	파트론	-2,854
셀트리온	4,543	위메이드	-2,015
뷰웁스	1,779	루멘스	-1,951
성광벤드	1,451	서울반도체	-1,902
GS홈쇼핑	1,228	에스에프에이	-1,108
포스코 ICT	929	하나투어	-1,099
차바이오앤	729	KG이니시스	-1,068
조이맥스	672	덕산하이메탈	-1,055
나노신소재	618	메디포스트	-847
인터플렉스	491	태광	-771

외 국 인		외 국 인	
순 매 수	순 매 도	순 매 수	순 매 도
오락,문화	6,047	제약	-3,221
화학	3,074	디지털컨텐츠	-960
반도체	2,896	방송서비스	-454
파라다이스	4,884	셀트리온	-5,174
원익IPS	2,280	서울반도체	-1,755
솔브레인	2,114	파트론	-928
하나투어	2,098	GS홈쇼핑	-839
씨티씨바이오	1,435	매일유업	-766
휴비츠	1,144	덕산하이메탈	-724
다음	1,126	하이소닉	-685
KG이니시스	1,089	유진테크	-524
실리콘웍스	1,013	에머슨퍼시픽	-510
스펙코	1,003	게임빌	-457

주: 외국인인 외국인투자등록이 되어있는 투자자

국내외 자금동향 및 대차거래

◆ 기관/외인 연속 순매수 상위 종목

(단위: 일)

KOSPI			
기	관	외	국 인
SK케미칼	13 일	효성	17 일
유니드	12 일	경방	8 일
현대중공업	11 일	삼성전자	8 일
SK	10 일	SK케미칼	8 일
두산	9 일	현대모비스	8 일
현대하이스코	9 일	한국금융지주	8 일
강원랜드	9 일	고려아연	7 일
BS금융지주	9 일	웅진코웨이	7 일

KOSDAQ			
기	관	외	국 인
이트레이드증권	66 일	동서	11 일
OCI머티리얼즈	9 일	파라다이스	7 일
동국산업	7 일	테크노세미켄	7 일
미래나노텍	7 일	태웅	7 일
포스코켄텍	6 일	SK컴즈	7 일
에이테크솔루션	6 일	SDN	7 일
태웅	5 일	크레듀	6 일
서부T&D	4 일	미래나노텍	6 일

◆ 기관/외인 5일간 누적 순매수 상위 종목

(체결기준: 백만원)

KOSPI			
기	관	외	국 인
KODEX 레버리지	389,128	삼성전자	573,062
삼성물산	57,142	NAVER	333,624
현대중공업	50,790	현대차	184,800
호텔신라	50,112	기아차	123,231
LG화학	42,092	KODEX 200	69,396
KT	41,297	한국전력	52,243
KB금융	33,576	SK텔레콤	38,046
강원랜드	32,607	삼성화재	37,215

KOSDAQ			
기	관	외	국 인
에스엠	17,501	파라다이스	17,958
성우하이텍	10,534	서울반도체	14,419
실리콘웍스	4,484	CJ오쇼핑	9,860
코오롱생명과학	3,086	다음	5,107
KH바텍	2,289	KG이니시스	4,984
GS홈쇼핑	2,015	코나아이	3,410
포스코켄텍	1,735	솔브레인	3,364
한국토지신탁	1,582	에스에프에이	2,528

◆ 기관/외인 동반 순매수 상위 업종 및 종목

(체결기준: 백만원)

종 목	KOSPI		
	기	관	외 국 인
화학	8,200	17,068	25,268
건설업	16,540	2,841	19,382
철강및금속	3,265	8,264	11,529
LG화학	9,826	1,554	11,381
KT	7,894	2,370	10,263
현대하이스코	1,170	5,136	6,305
삼성생명	1,861	4,266	6,126
제일모직	3,168	2,834	6,002
롯데쇼핑	5,177	824	6,000
KODEX 인버스	1,748	2,940	4,688
GKL	3,054	1,539	4,593
GS건설	4,497	40	4,537
대림산업	3,440	1,022	4,461

종 목	KOSDAQ		
	기	관	외 국 인
화학	305	3,074	3,378
의료,정밀기기	422	2,302	2,724
도매	30	2,303	2,332
솔브레인	125	2,114	2,239
뷰웍스	1,779	121	1,900
씨티씨바이오	292	1,435	1,727
성광벤드	1,451	233	1,684
차바이오앤	729	687	1,415
다음	57	1,126	1,183
포스코 ICT	929	173	1,102
실리콘웍스	24	1,013	1,037
나노신소재	618	354	973
제이콘텐츠리	352	621	973

주: 기관/외인 동반 순매수 종목 가운데 기관/외인 함께 순매수 금액이 큰 순서대로

국내외 자금동향 및 대차거래

◆ 기관/외인 연속 순매도 상위 종목

(단위: 일)

KOSPI			
기	관	외	국 인
TREX 200	32 일	하이트홀딩스	17 일
쌍용양회	19 일	조선내화	17 일
LG하우시스	14 일	강원랜드	15 일
세아제강	11 일	동양기전	12 일
후성	11 일	두산중공업	12 일
KODEX Brazil	11 일	BS금융지주	12 일
한국셀석유	10 일	SK	10 일
남양유업	8 일	현대건설	9 일

KOSDAQ			
기	관	외	국 인
덕산하이메탈	9 일	이트레이드증권	18 일
비에이치아이	9 일	동국산업	10 일
에이블씨엔씨	7 일	서부T&D	8 일
매일유업	6 일	네오위즈게임즈	8 일
태광	5 일	SBS콘텐츠허브	7 일
하나투어	5 일	매일유업	6 일
루멘스	4 일	셀트리온	6 일
메디포스트	4 일	동진세미캠	5 일

L

◆ 기관/외인 5일간 누적 순매도 상위 종목

(체결기준: 백만원)

KOSPI			
기	관	외	국 인
NAVER	-141,629	SK이노베이션	-50,063
KODEX 인버스	-133,217	호텔신라	-27,707
삼성전자	-70,891	KB금융	-27,582
현대차	-69,699	대우조선해양	-23,286
SK하이닉스	-59,888	KT	-22,115
효성	-39,096	LG전자	-15,365
KODEX 200	-31,950	LG디스플레이	-15,136
삼성화재	-26,037	현대차2우B	-14,825

KOSDAQ			
기	관	외	국 인
다음	-12,022	셀트리온	-159,185
하나투어	-10,613	매일유업	-5,414
서울반도체	-9,987	루멘스	-4,144
CJ오쇼핑	-9,640	오스팀임플란트	-2,974
루멘스	-8,116	게임빌	-2,816
에스에프에이	-7,064	GS홈쇼핑	-2,548
파라다이스	-5,058	SBS콘텐츠허브	-2,131
씨티씨바이오	-4,324	안랩	-1,461

◆ 기관/외인 동반 순매도 상위 업종 및 종목

(체결기준: 백만원)

종 목	KOSPI		
	기	관	외 국 인 합 계
섬유, 의복	613	180	793
종이, 목재	559	506	1,065
기계	1,096	138	1,234
기아차	-6,537	-6,935	-13,471
SK이노베이션	-6,110	-2,892	-9,002
현대위아	-2,823	-842	-3,665
LG하우시스	-2,408	-581	-2,989
코스맥스	-1,388	-1,458	-2,845
한진중공업	-1,319	-551	-1,870
현대차2우B	-355	-1,090	-1,444
LIG손해보험	-1,147	-83	-1,229
에스엘	-734	-35	-769
코리안리	-222	-444	-666

종 목	KOSDAQ		
	기	관	외 국 인 합 계
디지털컨텐츠	-1,825	-960	-2,785
음식료, 담배	-269	-436	-705
통신서비스	-461	-127	-588
파트론	-2,854	-928	-3,782
서울반도체	-1,902	-1,755	-3,657
위메이드	-2,015	-43	-2,058
덕산하이메탈	-1,055	-724	-1,779
매일유업	-274	-766	-1,039
씨젠	-646	-206	-851
유진테크	-308	-524	-832
한국사이버결제	-539	-190	-729
게임빌	-239	-457	-696
하이소닉	-7	-685	-693

주: 기관/외인 동반 순매수 종목 가운데 기관/외인 합계 순매수 금액이 큰 순서대로

국내외 자금동향 및 대차거래

◆ 공매도 거래대금 상위 종목

(체결기준: 천주, 백만원)

KOSPI			
종 목	주 수	금 액	
LG전자	287	20,608	
삼성전자	14	18,803	
POSCO	50	16,071	
현대차	31	7,706	
삼성전기	81	6,539	
현대중공업	28	6,405	
삼성SDI	35	6,023	
KODEX 200	207	5,169	

KOSDAQ			
종 목	주 수	금 액	
셀트리온	298	14,340	
다음	26	2,185	
포스코 ICT	170	1,550	
씨티씨바이오	49	1,069	
파트론	45	807	
게임빌	13	728	
오스템임플란트	25	682	
모두투어	23	562	

주: 상기 표의 수치는 2거래일 전 기준임

◆ 대차잔고 상위 종목

(체결기준: 천주, 백만원)

KOSPI		
종 목	주 수	금 액
삼성전자	2,996	4,098,747
POSCO	7,964	2,568,343
LG전자	18,484	1,338,209
현대차	4,027	1,002,786
OCI	5,056	796,254
기아차	10,105	679,040
삼성엔지니어링	7,531	634,096
오리온	564	556,100

KOSDAQ		
종 목	주 수	금 액
셀트리온	13,621	614,294
파라다이스	7,317	162,433
파트론	7,227	131,528
SK브로드밴드	19,929	100,046
서울반도체	2,182	81,699
에스엠	2,381	79,517
다음	889	75,561
씨젠	1,140	60,634

주: 상기 표의 수치는 2거래일 전 기준임

◆ 대차잔고 5일간 누적 순증/감 상위 업종 및 종목

(체결기준: 천주)

KOSPI			
	순 증		순 감
기계	4,735	금융업	-3,208
운수창고	3,702	전기,전자	-2,479
화학	3,143	운수장비	-1,178
두산중공업	3,699	SK하이닉스	-4,448
현대상선	3,303	KB금융	-2,041
동부하이텍	2,245	LG디스플레이	-879
코오롱인더	1,710	한화생명	-835
KODEX 200	1,448	한솔제지	-747
STX팬오션	1,159	영진약품	-706
넥센타이어	1,010	SG세계물산	-691
두산인프라코어	893	한진해운	-630
한국전력	810	STX조선해양	-580
월비스	776	삼성중공업	-532

KOSDAQ			
	순 증		순 감
제약	1,777	소매	-487
반도체	1,746	환경	-249
컴퓨터서비스	1,100	금속	-208
루멘스	1,693	리튬구체	-490
셀트리온	1,424	루미마이크로	-439
포스코 ICT	842	덕산하이메탈	-303
한광	696	코엔텍	-249
파트론	546	멜파스	-237
팜스토리	390	인터플렉스	-149
아미노로직스	357	스페코	-146
대아티아이	349	파라다이스	-132
이지바이오	332	에프에스티	-120
메타바이오메드	299	코다코	-116

주: 상기 표의 수치는 2거래일 전 기준임

국내외 자금동향 및 대차거래

◆ 증시 거래 주체별 매매 동향

(단위: 십억원)

구 분	연간 누계	월간 누계	5일간 누계	08/27(화)	08/28(수)	08/29(목)	08/30(금)	09/02(월)
외국인	-7,020.9	56.2	676.0	111.1	133.4	462.6	505.4	56.2
기관계	9,180.9	68.0	-244.3	56.0	73.6	62.2	-55.0	68.0
(투신)	-756.7	-48.5	-442.3	-12.2	1.2	125.5	4.5	-48.5
(연기금)	6,727.1	53.2	-43.5	115.7	94.9	-57.7	30.2	53.2
(은행)	-724.4	1.4	-1.4	-4.3	-0.1	-3.1	-29.4	1.4
(보험)	1,121.6	60.9	28.0	8.3	-8.7	45.8	8.2	60.9
개인	-1,516.2	-129.2	-377.4	-170.8	-189.7	-514.7	-438.6	-129.2
기타	-643.8	5.0	-54.3	3.6	-17.2	-10.0	-11.8	5.0

주: KOSDAQ 제외

◆ 증시 자금 동향

(단위: p, 십억원, %)

구 분	2010년	2011년	2012년	08/26(월)	08/27(화)	08/28(수)	08/29(목)	08/30(금)
KOSPI	2,033.3	1,825.7	1,997.1	1,887.9	1,885.8	1,884.5	1,907.5	1,926.4
고객예탁금	15,249.8	17,680.2	18,014.3	17,986.5	17,532.4	17,680.5	17,802.4	17,504.8
(증감액)	1,996.5	3,611.7	334.1	-87.3	-454.1	148.1	121.9	-297.6
(회전율)	50.9	34.2	26.7	26.5	31.8	32.4	36.0	40.4
실질예탁금 증감	-3,314.4	3,791.6	-13,274.3	-1.6	-457.5	32.0	44.3	-429.9
신용잔고	59,709.0	44,763.0	39,124.0	4,476.4	4,473.1	4,444.0	4,419.1	4,393.7
미수금	1,778.0	1,877.0	1,241.0	231.3	152.8	139.3	154.4	163.7

주1: 실질예탁금 증감=고객예탁금증분+개인순매수-(신용증분+미수금 증분) / 고객 예탁금 회전율=(KOSPI, KOSDAQ 거래대금/고객예탁금)*100

주2: 상기 표의 수치는 2거래일 전까지 제공, KOSCOM

◆ 국내 수익증권 유출입 동향

(단위: 십억원)

구 분	설정 잔액	연간 누계	월간 누계	08/26(월)	08/27(화)	08/28(수)	08/29(목)	08/30(금)
전체 주식형	90,943	-2,251	-1,580	-236	-157	-180	32	-138
(ex. ETF)		-3,289	-628	-106	7	-74	-21	-125
국내 주식형	68,607	420	-1,152	-175	-127	-156	44	-121
(ex. ETF)		-631	-200	-45	37	-50	-9	-108
해외 주식형	22,336	-2,670	-429	-62	-30	-24	-12	-16
(ex. ETF)		-2,658	-428	-62	-30	-24	-12	-16
주식 혼합형	9,624	-295	-65	-4	-6	-11	-14	-5
채권 혼합형	23,701	4,949	13	8	44	-8	-9	9
채권형	53,324	565	-275	-51	-108	-68	150	-65
MMF	66,105	1,655	-1,298	-626	-51	-160	-839	-2,334

주: 상기 표의 수치는 2거래일 전까지 제공, 금융투자협회

국내외 자금동향 및 대차거래

◆ 주요 이머징마켓 외국인 매매 동향

(단위: 백만달러)

국 가	연간 누계	월간 누계	5일간 누계	08/27(화)	08/28(수)	08/29(목)	08/30(금)	09/02(월)
한 국	-6,195	74	747	99	120	416	455	74
대 만	797	0	-417	-23	2	231	186	-
인 도	11,424	0	-812	-208	-156	12	-	-
인도네시아	-846	-21	-460	-22	-107	-7	56	-21
태국	-3,772	0	-359	-28	-95	12	2	-
남아공	2,917	0	-250	-70	-147	-	244	-
필리핀	1,185	-15	-277	-55	-129	-35	-44	-15

자료: Bloomberg, 한국투자증권

◆ 주요 금리, 환율 및 원자재 가격

(단위: %, 원, 엔, p, 달러)

구 분	2012년	08/26(월)	08/27(화)	08/28(수)	08/29(목)	08/30(금)	09/02(월)
회사채 (AA-)	3.29	3.31	3.31	3.30	3.28	3.25	3.29
회사채 (BBB-)	8.80	9.01	9.01	9.00	8.98	8.95	8.99
국고채 (3년)	2.82	2.94	2.94	2.93	2.91	2.88	2.92
국고채 (5년)	2.97	3.28	3.27	3.24	3.21	3.17	3.21
국고채 (10년)	3.16	3.67	3.66	3.61	3.58	3.53	3.59
미 국채 (10년)	1.76	2.79	2.76	2.76	2.78	2.78	-
일 국채 (10년)	0.80	0.76	0.74	0.72	0.71	0.71	-
원/달러	1,070.60	1,112.70	1,116.30	1,115.40	1,109.70	1,110.00	1,100.50
원/엔	1,243.73	1,129.75	1,147.51	1,140.72	1,128.08	1,130.70	1,121.01
엔/달러	86.08	98.49	97.28	97.78	98.37	98.17	98.17
달러/유로	1.32	1.33	1.33	1.33	1.32	1.32	1.32
DDR3 1Gb (1333MHz)	0.67	1.19	1.16	1.16	1.16	1.16	-
DDR3 2Gb (1333MHz)	1.07	1.61	1.58	1.58	1.59	1.59	-
NAND Flash 16Gb (MLC)	1.89	2.96	3.01	3.01	3.03	3.06	-
CRB 지수	295.01	292.87	294.71	295.69	293.79	291.16	-
LME 지수	3,454.5	3,183.5	3,168.2	3,145.7	3,094.7	3,062.8	-
BDI	699	1,165	1,169	1,146	1,136	1,132	-
유가 (WTI, 달러/배럴)	91.82	105.92	109.01	110.10	108.80	107.65	-
금 (달러/온스)	1,663.40	1,393.10	1,420.20	1,418.80	1412.90	1,396.10	-

자료: Bloomberg, KOSCOM, 한국투자증권

KOSPI200 선물 옵션 시장 동향

◆ 선물시장 지표

(단위: P, 계약)

	기초자산	최근월물	베이스스			거래량	미결제약정	
	KOSPI200	1309월물	이론	마감	평균		증감	증감
8월 27일	245.71	245.45	0.29	-0.26	-0.37	169,593	121,562	2,477
8월 28일	245.67	245.65	0.27	-0.02	-0.28	198,632	127,014	5,452
8월 29일	248.86	249.80	0.25	0.94	0.42	193,593	128,570	1,556
8월 30일	251.74	250.95	0.24	-0.79	0.34	175,342	125,826	-2,744
9월 2일	251.13	251.85	0.20	0.72	0.38	163,500	124,187	-1,639

◆ 지수선물시장 투자주체별 매매동향

(단위: 계약)

	외국인	개인	기관종합					보험	기금
			증권	투신	은행	증권	투신		
8월 27일	5,307	-3,576	-1,681	-294	-1,608	-37	487	-229	
8월 28일	2,236	-784	-1,581	-733	-1,037	-287	-52	528	
8월 29일	7,468	-3,766	-3,971	-3,969	-384	43	338	1	
8월 30일	-302	1,085	-839	-83	-1,026	-259	450	76	
9월 2일	2,016	308	-2,354	156	-3,024	192	446	-127	
누적포지션	10,264	-2,717	-9,508	-6,339	-5,165	98	1,682	210	

◆ 지수선물 프로그램 매매동향

(단위: 십억 원)

	프로그램 전체			비차익거래			차익거래			차익거래잔고	
	매도	매수	순매수	매도	매수	순매수	매도	매수	순매수	매도	매수
8월 27일	648	494	-154	592	484	-109	55	11	-45	5,234	7,968
8월 28일	554	534	-20	534	503	-31	20	31	11	5,237	7,982
8월 29일	761	992	231	714	879	165	47	113	66	5,247	8,065
8월 30일	821	1,091	271	798	1,043	245	23	49	26	5,242	8,081
9월 2일	526	683	157	513	628	115	13	56	4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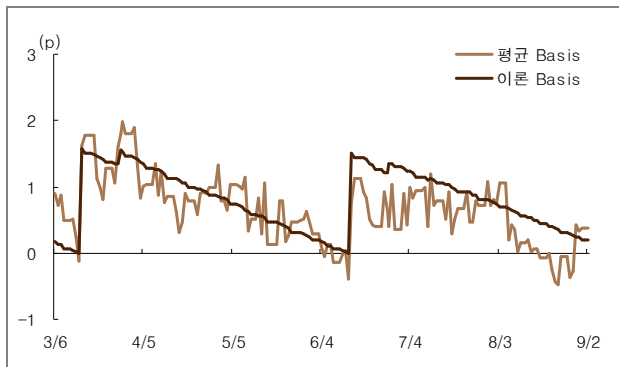
◆ 옵션시장 거래동향

(단위: 변동성(%)/가격(P))

변동성	콜옵션			행사가격	풋옵션			변동성
	미결제증감	거래량	현재가		현재가	거래량	미결제증감	
16.10	1,506	123,395	0.06	265.00	13.65	6	-5	0.00
15.71	2,329	131,701	0.13	262.50	11.10	18	-2	0.00
16.01	2,372	193,298	0.32	260.00	8.15	127	12	0.00
16.06	-1,258	259,212	0.66	257.50	6.40	2,242	187	11.28
16.87	267	225,808	1.35	255.00	4.50	7,420	958	13.03
17.54	-1,586	142,735	2.36	252.50	2.90	45,374	3,774	13.57
18.75	-2,599	31,227	3.80	250.00	1.95	133,141	2,991	15.42
20.06	-564	10,324	5.55	247.50	1.28	157,856	1,243	16.88
22.77	-583	2,154	7.70	245.00	0.82	173,391	4,115	18.11
24.98	-259	505	9.90	242.50	0.50	128,354	2,751	19.03
27.37	-209	329	12.20	240.00	0.33	102,331	-179	20.4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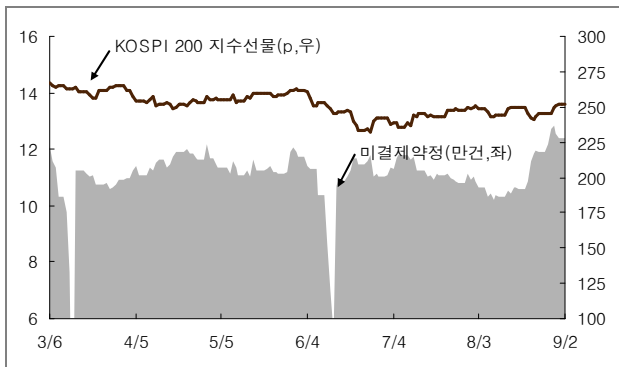
■ 주요 지표

이론 Basis & 평균 Basi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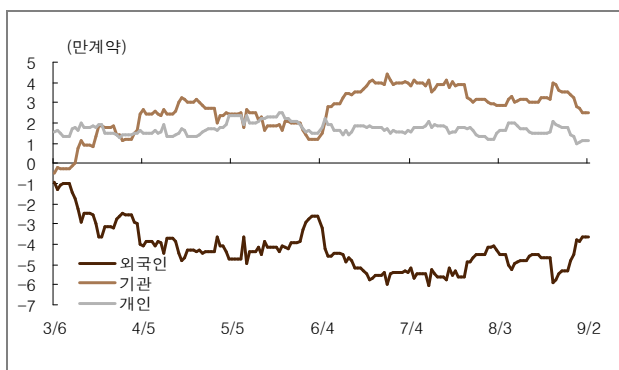
- 평균 Basis: 0.38 (전 거래일 대비 0.04 상승)
- 이론 Basis: 0.20

선물 가격 & 미결제 약정수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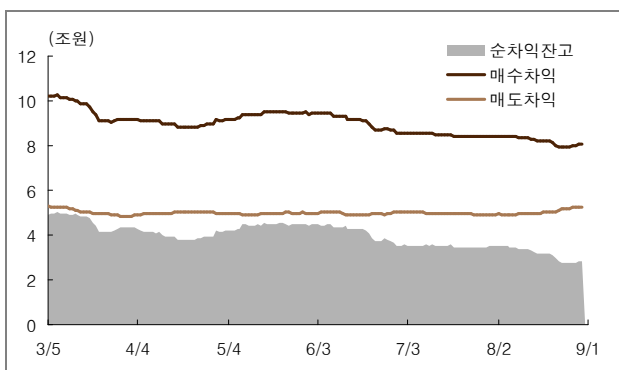
- 미결제약정: 전 거래일 대비 1,639 계약 감소한 124,187 계약
- 선물가격(251.85): 전 거래일 대비 0.90p 상승

투자주체별 누적 순매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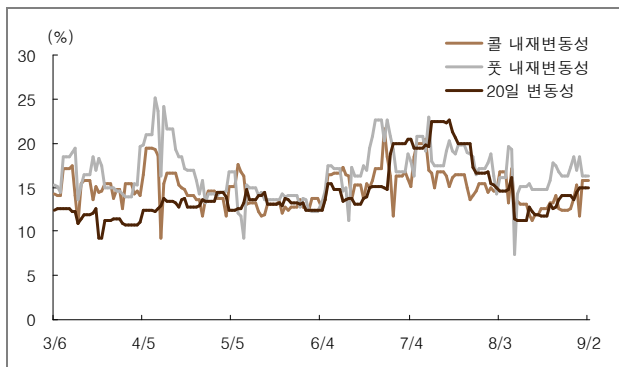
- 외국인: 2,016 계약 순매수
- 기관: 2,354 계약 순매수 / 개인: 308 계약 순매수

차익거래 잔고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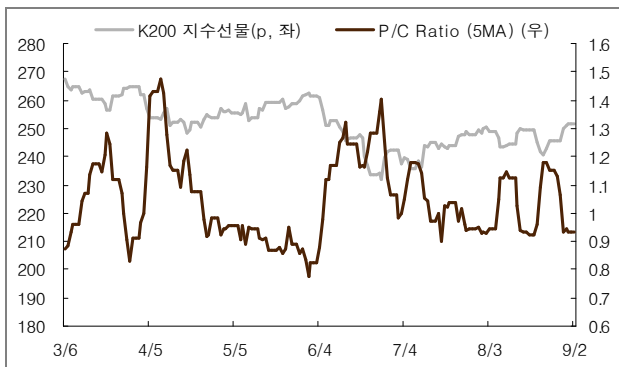
- 차익거래: 425 억원 순매수
- 비차익거래: 1,149 억원 순매수

KOSPI200 옵션 변동성 추이



- 대표 내재 변동성: 콜 15.7% / 풋 16.2% 기록
- 20일 역사적 변동성: 14.91% 기록

Put/Call Ratio



- 금액 기준 P/C Ratio(5MA): 0.93 기록

*** 데이터 불연속성은 선물 13년 6월물이 최근월물로 거래된 데 따른 것임

한 눈에 보는 증시 일정

월	화	수	목	금
26	27	28	29	30
美> 7월 내구재 주문 (-7.3%, -4.0%, 3.9%)	韓> 8월 소비자기대지수 (105, n/a, 105) 美> 8월 소비자기대지수 (81.5, 79.0, 80.3) 6월 케이스실러 주택가격지수 (159.54, 159.30, 156.18)	韓> 9월 제조업 기업경기실사지수 (77, n/a, 73) 美> MBA 주택용자 신청지수 (-2.5%, n/a, -4.6%) 유럽> 유로권 M3 SA YoY (2.2%, 2.0%, 2.4%)	韓> 7월 경상수지 (USD, 백만) (6,771, n/a, 7,237) 7월 상품수지 (USD, 백만) (5,679, n/a, 5,025) 美> 신규 실업수당 청구건수 (33.1만, 33.2만, 33.7만) 실업보험연속수급신청자수 (298.9만, 298.8만, 300.3만) 2분기 연간화 GDP QoQ (2.5%, 2.2%, 1.7%)	美> 7월 개인소득 (0.1%, 0.2%, 0.3%) 7월 개인소비지수 (0.1%, 0.3%, 0.6%) 8월 미시건대 소비심리평가지수 (82.1, 80.5, 80.0) 유럽> 8월 유로권 CPI YoY(예상) (1.3%, 1.4%, 1.6%) 7월 유로권 실업률 (12.1%, 12.1%, 12.1%) 8월 유로권 소비자기대지수 (-15.6, n/a, -15.6) 日> 7월 실업률 (3.8%, 3.9%, 3.9%) 7월 CPI YoY (0.7%, 0.7%, 0.2%)
9/2	3	4	5	6
韓> 8월 소비자물가지수 YoY (1.3%, 1.5%, 1.4%) 8월 무역수지 (백만 달러) (4,916, 2,250, 2,540) 유럽> 8월 유로존 제조업 PMI(최종) (51.4, 51.3, 51.3) 8월 독일 제조업 PMI(최종) (51.8, 52.0, 52.0) 中> 8월 광방 제조업 PMI (51.0, 50.6, 50.3) 8월 HSBC 제조업 PMI (50.1, 50.2, 47.7) 日> 8월 자동차 판매 YoY (-6.4%, n/a, -13.5%) 8월 자본지출 YoY (0.0%, -2.1%, -3.9%)	美> 8월 Markit PMI 최종 (n/a, n/a, n/a) 8월 건설지출 MoM (n/a, 0.3%, -0.6%) ISM 제조업 지수 (n/a, 54.0, 55.4) 日> 8월 분원통화 YoY (n/a, n/a, 38.0%)	美> 7월 무역수지 (억 달러) (n/a, -387, -342) MBA 주택용자 신청지수 (n/a, n/a, -2.5%) 유럽> 8월 GDP SA YoY (n/a, -0.7%, 0.7%) 7월 소매판매 YoY (n/a, -0.3%, -0.9%) 8월 유로존 서비스 PMI(최종) (n/a, 51.0, 51.0) 8월 독일 서비스 PMI(최종) (n/a, 52.4, 52.4)	韓> 2분기 GDP SA YoY (n/a, 1.5%, 1.4%) 美> 신규 실업수당 청구건수 (n/a, 33.0만, 33.1만) 8월 총 자동차 판매 (n/a, 1,580만, 1,573만) 8월 ADP 취업자 변동 (n/a, 18.0만, 20.0만) 7월 제조업 수주 (n/a, -3.5%, -1.5%) 유럽> ECB 금리 공시 (n/a, 0.50%, 0.50%) 7월 독일 공장수주 YoY (n/a, 2.9%, 4.3%) 日> 일본은행 정책금리 (n/a, 0.10%, 0.10%)	美> 8월 비농업부문고용자수 변동 (n/a, 18.0만, 16.2만) 유럽> 7월 독일 산업생산 YoY (n/a, 0.8%, 2.0%)
9	10	11	12	13
中> 8월 무역수지 日> 2분기 GDP SA QoQ 2분기 연간화 GDP SA QoQ 7월 BoP 경상수지	中> 8월 소비자물가지수 YoY 8월 생산자물가지수 YoY 日> 8월 통화량 M2 YoY 8월 통화량 M3 YoY 7월 3차 산업지수 MoM	韓> 8월 실업률 SA MBA 주택용자 신청지수 7월 도매 재고 MoM 日> 8월 국내 CGPI YoY	韓> 금통위 기준금리 발표 美> 신규 실업수당 청구건수 실업보험연속수급신청자수 8월 수입물가지수 MoM 유럽> 7월 산업생산 SA MoM 日> 7월 기계수주	美> 8월 월간 재정수지 8월 생산자물가지수 YoY, 8월 소매판매 추정 MoM 9월 예상 미시건대 기대지수 日> 7월 광공업생산 7월 설비가동률

주: 괄호안은(발표치, 블룸버그 예상치, 이전치) 순이며 예상치는 변동 가능
 발표일자는 한국시간 기준 (단, 오전6시 이전에 발표되는 지표는 전일 기입)
 실적발표일은 Bloomberg, 기업 공시 기준으로 작성 (변동 가능, *표시는 한국시간 당일 아침)

